

제25회
생글논술경시대회
해제 및 예시답안

고2 인문 유형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 

■ 출제의도

행복은 모든 인간의 삶의 목표이다. 그러나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행복하다’ 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행복도가 낮은 사회이다. ‘헬조선’ 이라는 부정적인 신조어가 등장하는 게 이상할 게 없다. 사회 곳곳에서 불행을 암시하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불고 있는 ‘소확행’ 이나 ‘올로’ 문화는 청년 세대의 불행을 반영한다고 분석되기도 한다. 고려대 윤인진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보니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고 설명한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먼 미래의 행복이 아닌 지금 당장의 행복에 주목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마시멜로이야기’ 에서 지금 당장의 작은 행복을 위해 미래의 더 큰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했던 게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불가능한 미래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아마도 수저계급론으로 대표되는 사회격차가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좁혀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치열하게 노력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래대신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일을 해 그나마의 만족을 찾기 위함일 수도 있다.

미래가 없는 듯 당장 눈앞의 상황에만 주목하는 풍조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므로 소소하지만 다양한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분명 현명하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행복’ 이란 주제는 그동안 많은 대학에서 출제어 왔다. 행복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논술 주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경제 불황기에 행복에 대한 욕구는 더 높아진다. 아마도 불행하기에 행복하고픈 욕구가 그만큼 커지는 것일 테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행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논술경시대회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행복’ 이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넘어 사회문화적인 차원으로 확대시켜 생각해볼길 바란다.

■ 제시문분석

제시문 (가)

우리는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보다 완전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될 뿐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 것이 완전하다. 그 무엇보다도 행복이 그렇게 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 다른 무엇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 인간의 기능을 이성애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좋음은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고, 그 활동 자체가 곧 행복이다.

행복은 훌륭함에 따른 인간 영혼의 활동이므로 인간의 행위로 성취되거나 소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소나 말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동물은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 또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어린이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행복에 대한 희망을 말한 것일 뿐이다.

운에 따라 인간의 행복 여부를 판단해도 좋을까? 인간이 운에 의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운이 인간적

삶에 더해질 뿐이다.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이 행복이고, 그 반대의 활동은 분명 불행을 불러온다. 그러나 추가되면 좋을 것이 추가되지 않는다 하여 행복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중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것은 없다. 그 활동은 학문적 인식보다 더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복된 사람들은 그 활동을 누리며 가장 연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간다.

인간의 삶에서 훌륭함을 따라가는 영혼의 활동이 결정적인 것이라면, 지극히 복된 사람들 중 누구도 비참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운을 품위 있게 견디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훌륭한 장군이 주어진 부대를 전략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꾸려가고, 좋은 제화공이 자기가 가진 가죽으로 가장 훌륭한 구두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결코 비참하게 되지는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실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운수는 이리저리 몰아치며 변화무쌍한 얼굴을 드러내지만, 완전한 훌륭함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늘 그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특정한 기간만이 아니라 그의 온 생애에 걸쳐 행복하다.

▶ 제시문 (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발췌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상의 좋음으로서의 행복을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최적으로 발휘한 상태라 말하며, 이 같은 상태를 훌륭함(arete)이라 부른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은 훌륭함에 따른 인간 영혼의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일반인은 ‘운’이 우리의 의지를 벗어나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한다는 생각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운’과 같이 우연의 선물이라 아니라, 좋음을 추구하는 인간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운’은 행복의 장진구 또는 장애물일 수는 있으나 ‘행복’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이상의 무엇일 수는 없는 것이다

제시문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선택이 ‘좋음’을 목표로 하는데 완전한 것이 최상의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을 찾겠다고 시작하며 그 완전한 것이 바로 ‘행복’임을 명시한다. 행복은 그 자체로 선택하는 것이며 그 무엇보다 완전한, 훌륭함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행복은 인간의 행위로 성취되거나 소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행복은 우연과 같은 운에 기대지 않음을 세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이 행복이고 반대의 활동은 불행을 가져오지만 추가되면 좋은 것이 추가되지 않는다 하여 행복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운이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님을 밝힌다. 계속해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훌륭함을 따라가는 영혼의 활동이 결정적인 것이므로 본성이 고결한 사람들은 품위있게 견디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행위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완전한 훌륭함’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온 생애에 걸쳐 행복하다는 것이다.

제시문 (가)는 여러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핵심내용이 마지막 문단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즉, ‘행복이란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이며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

옛날 어느 나라에 바위를 쪼아 무엇을 만드는 석수장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항상 자기의 생활에 불만이였다.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태어났나?” 이러면서 어느 날도 산 중턱에서 바위를 쪼고 있는데 그 아래 길로 임금님 행차가 지나가게 되었다. 임금님 행차라는 소리에 밀을 내려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고 문무대신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고 악대가 선두주자로 나가며 요란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저 임금이 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너는 임금이 되어라” 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는 갑자기 임금이 되었다. 임금이 되고 보니까 부러울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발밑에 있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었다. 머리 위의 태양은 그에게 절하지도 않고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뜨거운 빛을 뿜고 있었다. 그는 욕심이 나서 다시 “내가 저 태양이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는 순간에 또 하늘에서 “너는 태양이 되어라.” 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태양이 되었다. 태양이 되니까 임금이 부럽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

이 몰려들더니 태양을 가려버렸다. 그는 얼른 “내가 저 구름이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하여 또 구름이 되었다. 구름이 되니까 천하의 태양을 가릴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강풍이 몰아치면서 바람에 구름이 밀려가기 시작했다. “내가 저 바람이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하여 그는 다시 바람이 되었다. 바람이 되니까 태양을 이기는 구름까지 몰아내고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밀려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산 중턱의 큰 바위였다. “야, 저 바위가 나보다 더 세구나, 내가 바위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또 갑자기 바위가 되었다. 천하의 바람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석수장자들이 와서 그 바위를 쪼기 시작했다. 그는 몹시 아파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들이라면 좋을 텐데.” 그리고서 정신이 나서 보니까 도루 석수장이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 제시문(나)는 파울로 코엘료의 우화 “석수장이 이야기”이다. 바위를 쪼아 무언가를 만드는 석수장이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다 자기보다 더 좋아보이는 대상(임금, 태양, 구름, 바위)으로 변하는데 결국은 자기 몸이 부서지는 것을 아파하며 석수장이 되길 바라고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자신보다 더 나은 처지의 사람들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며 그들이 되고 싶어했지만 결국 되돌아온 것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해 준다. 어떤 때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기 싫고 남의 일이 더 좋아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때가 많다. 남의 떡이 더 크고 남들의 삶이 더 좋아 보여 정작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석수장이 우화는 진정한 자족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준다. 이 이야기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준다. 돈이나 권력, 지식이나 명예 등 남들보다 많이 가졌는가 아닌가로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시문 (다)

경제학은 자기 자신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주어진 조건 아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합리적 인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합리적 인간은 소비자로서 제한된 소득을 지출하여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계산하고 선택한다. 이러한 합리적 인간을 창조한 인물은 공리주의 철학의 원조 제레미 벤담이다. 그에 의하면, **삶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행복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는 데 있다.** 여기서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이다. 사회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을 합친 것이며 입법의 목적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있다. 그가 제시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표현은 이를 집약한 것이다. 따라서 벤담이 창안한 합리적 인간은 오직 두 가지 사실만 고려한다. 하나는 쾌락(행복, 즐거움, 만족 또는 효용)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불행, 괴로움, 고생 또는 비효용)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 개념은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 스스로 잘 아는 개인이 자기가 가진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 제시문 (다)는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에서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와 경제학 간의 논리적 연관성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표현으로 집약되는 공리주의의 원리가 ‘합리적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제학의 철학적 기초를 이룬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근본 원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리를 사회적 실천 속에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학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합리적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고자’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성이란 개인이 가진 제한된 자원으로 자신의 최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제시문 (라)

소확행' 과 '올로' (Yolo)란 단어가 요즘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한다. 소확행은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가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느끼는 행복과 같이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을 뜻하는 단어로 처음 사용하였다. 즉 소확행이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란 뜻이다. 덴마크의 '휘게' 나 스웨덴의 '라곰' 이라는 정서와 닿는 신조어다. 올로는 '인생은 한 번 뿐' (You Only Live Once)이라는 문장의 단축어다. 거창하고 화려하고 오랜 기간 준비해야 하는 커다란 이상을 추구하느라 모든 것을 유예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과 주변에서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작은 기쁨의 가치를 일깨우는 단어**들이다.

이와 같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추세는 의식주 같은 생활의 기본조건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람들은 삶에서 만족 즉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 조사연구 결과와 상응한다.** 그러나 **격차 확대라는 사회문제도 반영돼 있다.** 멋진 승용차나 대도시의 번듯한 아파트를 꿈꾸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행위가 결실로 이어지기보다 **영원히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대상으로 멀어져가는 데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룰 수 없어 보이는 목표 대신 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 제시문 (라)는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소확행과 올로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투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한 글이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작은 기쁨의 가치를 일깨우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격차확대라는 사회문제도 반영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데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작은 목표를 통해 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만 인식될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생활의 소소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안분지족의 삶이라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사회 양극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긍정적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논제분석 및 답안작성방향

[문제 1] 제시문 (가)를 250자로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석수장이'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30점, 450-550자)

논제에서 2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제시문 (가)를 요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석수장이'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답안작성은 (가)의 핵심논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 후 석수장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제시문 (나)의 우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내용이 (가)의 핵심논지로부터 어떤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된다.

먼저 첫 번째 요구부터 살펴보면,

요약이란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답안을 작성하기 매우 어렵다. 긴 글을 무작정 줄이는 게 요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약을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인 태도로 읽기'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답은 제시문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작성한 경우다. 그러나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대학에서 요약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제시문의 이해 능력과 정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다시피 한 경우 그러한 평가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문의 논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단락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필자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제시문 (가)를 요약할 때에는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제시문에서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운과 비교하며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이며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핵심논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선택은 ‘ 좋음 ’ 을 목표로 하는데 최상의 좋음은 바로 ‘ 행복 ’ 이다. 이러한 행복은 인간의 행위로 성취되거나 소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행복은 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성이 고결한 사람들은 모든 운을 품위있게 견디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행위를 한다. 그러므로 ‘ 완전한 훌륭함 ’ 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온 생애에 걸쳐 행복하다.” (235자)

다음으로, 제시문 (나)의 석수장이의 태도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그것이 (가)의 핵심논지와 어떠한 논리적 연관성을 지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비판이란 주어진 지침에 따라 대상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거나 제시된 주장을 지지하거나 혹은 반박하는 것은 물론, 주어진 쟁점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의 핵심논지와 (나)의 석수장이의 태도가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가)에 의하면 석수장이는 어떠한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서술하는 게 중요하다.

제시문 (나)의 석수장이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사에 불만만 터트리는 인물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보다 더 좋아 보이는 대상(임금, 태양, 구름, 바위)으로 변하는데 결국은 자기 몸이 부서지는 것을 아파하며 석수장이가 되길 바라고 원래대로 돌아온다. 자신보다 더 나은 처지의 사람들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며 그들이 되고 싶어했지만 결국 되돌아온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석수장이를 비판할 때에는 (가)의 행복이 인간의 행위로 성취되고 소유될 수 있다는 것, 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행복이란 온전히 ‘ 완전한 훌륭함 ’ 에 따르는 인간의 행위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인데 석수장이는 남들과 비교하며 더 좋아보이는 대상이 되기만을 바랐기 때문에 매사에 불평불만만 가지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석수장이가 결국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통해 행복이란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행위를 하는 것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도 서술가능하다. 따라서 석수장이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이 자신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훌륭한 행위를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문제 2] 제시문 (다)를 이용하여 제시문 (라)의 현상을 분석하시오. (30점, 450-550자)

논제에서는 제시문 (다)를 이용해 (라)의 사회현상을 분석하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 연역추론 ’ 이 필요하다. (다)의 핵심논지를 기본원리로 삼아 (라)의 구체적인 사회현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분석이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상을 풀어서 알기 쉽게 풀어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라)의 사회현상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것까지 이루어진다면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먼저, 제시문 (다)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란 표현으로 집약되는 공리주의의 원리가 ‘합리적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제학의 철학적 기초를 이룬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합리성이란 개인이 가진 제한된 자원으로 자신의 최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 자신의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욕구충족을 가능케 하는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공리주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제시문 (라)의 사회현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라)는 소확행과 율로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투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한 글이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작은 기쁨의 가치를 일깨우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격차확대라는 사회문제도 반영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데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작은 목표를 통해 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만 인식될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두 제시문의 핵심논지를 파악한 후, (다)의 핵심논지가 (라)의 사회현상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늘리는 선택, 한정된 자원으로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합리적이라고 보는 (다)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소확행, 율로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 인생을 허비하기보다 실현가능한 목표에 주목하여 행복을 느끼는 선택은 그야말로 공리주의적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라)의 현상은 한정된 자원으로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합리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제시문 (라)에서 소확행, 율로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사회의 격차확대라는 사회문제도 반영되어 있다고 한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처해 있는 상황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사회 양극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긍정적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측면에서도 소확행과 율로는 고통을 줄이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까지 서술한다면 훌륭한 답안으로 평가될 것이다.

[문제 3] 모든 제시문을 참고하여 ‘행복과 소비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40점, 700-800자)

견해를 서술하라는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술은 제시문을 통해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문제이다. 배치되어 있는 제시문들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모든 제시문들이 드러내고 있는 주제의식을 파악하고, 그 주제의식의 범주 하에서 견해를 서술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숙지해야 한다.

또한 문제에서 ‘모든 제시문을 참고’ 하라고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가)행복과 운의 관계, (나)석수장이우화, (다)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합리적 선택, (라)소확행과 율로로 대표되는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제시문들의 핵심논지를 자기 견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각각의 논지를 어떤 식으로 엮어 구성하는가는 답안작성자의 자유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중에 행복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가)를 바탕으로 (나)~(라)의 사례를 행복과 소비라는 논제요구와 연관지어 설명한 후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해도 무방하다.

또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시문 (가)의 논지를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르면 소비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밝히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활동이다.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생활이 영위되지 못하므로 인간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소비만으로 인간의 삶을 논할 수도 없다. 따라서 답안을 작성할 때 소비란 현대사회에서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활동인지 서술하는 것도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